

위원장에 심순택 후보 당선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 선출 -



▲ 심순택 위원장(우)이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는 지난 3일 대전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위원장 선거에서는 심순택 후보가 당선되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게 되었고 대의원 의장에는 오세진 대의원, 부의장에 남상길 대의원, 감사에 김의겸, 최길영 대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12명의 관리위원 선출도 마쳤다.



▲ 심순택 위원장



▲ 오세진 의장



▲ 김의겸 감사



▲ 최길영 감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 명단

지역	성명	지역	성명
경기/강원 인천	김명기	전북	오세진
	남상길		정윤섭
경남	이상정	충남	신현철
경북	장재성		정운광
전남	조건택	충북	원용균
	정성호	종계	김석산



▲ 이날 선출된 임원진과 이홍재 전 위원장, 김정주 명예교수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니 인터뷰

Q. 위원장에 선출되신거에 축하드리며 앞으로 계획과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닭고기자조금의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조금 거출율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상 6개월안에 거출율을 60%, 8개월안에 8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타 축종과 견줘도 손색없게 50억, 100억 규모로 확대할 것이며 이는 모든 계열사와 농가협의회를 일일 방문하여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지고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닭고기 소비량을 늘리는데도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비록 지금은 타 축종에 비해 초라하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앞서 언급한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후대에 물려줄 양계업이 될수 있도록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내일을 보고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양계**



▲ 심순택 위원장(농업회사법인 (유)익산한닭 미래농장 대표, (사)한국육계협회 부회장)